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

What should be done?



김의중 | Kim, Eui-jung, KIRA  
대한건축사협회 비상근부회장

건축사에게 위기가 닥쳤다. 우리만 위기가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느 곳 하나 멀쩡하질 못한 듯하다. 우리에게엔 어려움이 너무 오래동안 지속되었다. 툭툭 털고 일어날 방법은 없는가?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길을 찾아야 한다. 멈춰서 해결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곳을 뚫고 지나가는 것뿐이다. 건축사지 500호 시론(時論)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는 선배의 말처럼<sup>1)</sup>, 그 답 중에서 지금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한다.

먼저 법제화(法制化)이다.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이 가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설계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우리끼리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건축관련 전문분야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불합리, 불공정한 제도가 널려있다. CM,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이어 건축기획, 파사드 컨설팅, 리노하우스 등 새로운 시장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불합리, 불공정한 제도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작은 움직임까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이를 장·단기 정책(政策)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국가에게,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법제화 시켜야 한다. 법과 제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법제화는 험난하다. 많은 회원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유행하는 밀당도 필요할 것이다. 때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 법제화시켜,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해야 한다.

다음은 교육(教育)이다. 500㎡이상 대부분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등은 매매나 임대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기법에서 건축설계도 CM이 총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적이 있다. 도면에 자재를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자재 분야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기획, 파사드, 에너지부분, CM, 자재선택 등 모두 우리의 업무이다. 많은 회원들이 설계에 집중하고, 전문화하지 못한 결과 시장을 잠식당했다. 회원 중에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많은 시간 노력한 자는 각자의 전문분야로 들어섰다. 최근 법령 추진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대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올해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이 시행된다. 팍팍한 살림에 교육비까지 부담하면서 받아야 하는 교육제도가 편치는 않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전문화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열릴 것이다.<sup>2)</sup>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건축이 건설용역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규제 위주에서 진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서비스 분야의 할 일을 찾아내고, 굵은 것은 퍼서 법제화하고, 협회는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이 모든 일에 회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끝으로 "본업을 버리는 자는 망하고,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돛을 올리는 사공은 결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 바람에 따라 그때그때 돛의 방향을 바꿔야 순풍을 따를 수 있다. 또, 평균풍속보다 순간풍속은 훨씬 빠르다. 1톤을 견뎌야 한다면 5톤은 견딜 수 있게 배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 역시 미리 위기를 준비해야지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의 인터뷰 중에서) ㉮

필자는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비상근부회장으로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대표로 재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초지역건축사회장과 본협회 이사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서초구 건축심의위원, 서울고법 조정위원 및 전문 심리위원, 신공항건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원고를 마감할 즈음 배달된 건축사지 5월호에 1966년에도 계약서와 설계보수대가가 "뜨거운 감자"였단다.

2)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통시장 강소상인에게 배우는 지혜" 참조바람.